

지금과 생명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키트·G·존슨

본인은 작년 1970. 10. 25일 자에 쓴 “時代의 一片愁” 이란 글에서 경제적 성장 자체가 극가의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는 주제를 전개한 바 있다. 보다 가치있는 목표란 경제적 성장이 단지 수단일 수 밖에 없는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말한다.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데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의 예로, 매년당 소요될 금액을 떠나서, 수적으로 부족한 한국 간호원들이 독일로 정식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크게 여론화 하려는 듯이 같은 날 자의 The Korea Times 의 4면에는 노동청이 간호원의 수출을 억제 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한국은 최소한의 기준에 충족할만한 간호원의 수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간호원들 자신도 독일 병원에서 취업할 의욕이 없는다고 써 있었다.

두어달 전에 본인은 노동청이 한국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한국간호원의 독일 수출을 위한 계약을 협의 중이란 사실을 듣고 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본인의 꾸준한 탐문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충분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던 차 1971. 2. 25일자 The Korea Times에 독일병원협회가 매년 800~900명의 한국간호원들을 독일로 수출하는 계약을 시도 중이라고 보도 했다.

자! 다시 나의 주체에 대해서 계속해 봅시다. 한국에 크게 가치가 있는 간호원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국면서에 독일의 마르크화(貨)를 저축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한국 간호원의 의의는 한국 국민

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원으로서 우선해야 한다. 보건사회부 애기로는 한국에 등록된(면허받은) 간호원수가 13,000명 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한국에 13,000명의 간호원이 현직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록(면허)만 되면 미취업이나 사망이나 해외 이민이라도 그대로 “등록된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모든 취업간호원은 대한간호협회에 소속되어야하고 1970년도 대한간호협회의 등록된 수는 단지 5,435명 뿐이었다. 보사부에 등록된 간호원 수에서 가산되는 매년 도태와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아닌 간호원의 취업수들 가정한다면 현재 한국에 취업중인 간호원의 수효는 7,000~9,000명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일, 내가 믿을만한 소식 등에서 들은 바대로 독일병원 협회가 한국 해외개발공사와 협의하여 3,000명의 한국간호원을 독일에 수입한다면 한국간호원의 전 취업수의 25~30%가 독일에 간다는 얘기가 된다. 이 사실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1970년 10월 현재 각 국립병원과 도립병원의 1967년도 경기도 보건소 직원의 80% 이상이 간호원인데 비해 1970년에는 20%만이 간호원이었다.

1969년 현 보사부 모자보건과장은 “보건요원 연구”라는 책자에서 현재의 시설에 준해서 간호원의 수요가 1971년에 12,437명이요 1976년에는 19,349명으르 추산했다.

또한 1968년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임 등이 발간한 “한국의료요원실태”에 의하면 1976년 한국의 간호원의 수요는 17,960~20~160명으로 추산했는데 전 세계에서 쓰이는 보건 및 치료 제도에 따르면 간호원의 수요는 37,160명.

으로 늘어날 것이다.

1970년에 졸업한 한국간호원의 수는 1,316명이
고 1971년에는 1924명이 졸업할 것이나 대한
간호협회 교육위원회의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매
년 취업간호원 층에 도태되는 수는 1,500명으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매년 독일에서
800~900명의 간호원을 수출할 여유가 없으며 특
히 일단 이들이 가면 한국에 현직으로 돌아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간호원들이 독일에서 한국정부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매월 디화
300블을 죽은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10,800블
을 벌고 있다. 이돈에서 이들은 1,400블 정도의
왕복비행 요금을 들어야 하고 잡비와 기타를 해
외에서의 구입에 사용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간
호원들은 야마도 브진전문가들이 보는 바트는
얼마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대략 4,000~6000블
을 가지고 오게 된다. 만일 금년에 수출하기로 된
800명 중 절반이 3년후 돌아온다면 이들은 200
만블 혹 한국인 매인당 6·6센트씩 차폐가 될 것
이다.

따라서 한국은 독일에 갔다 귀국하는 간호원들
에 의해 매년 2,000블 정도로 부유해지는 셈이
지만 실제로 귀국하는 숫자는 절반도 못되므로
대략 매인당 1,000블 정도를 벌어들여오는 것으로 간
주할 수 밖에 없다.

간호원 한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므
로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생명이 희생되며 얼
마나 많은 고통과 국내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
는가? 현재의 시설 기준으로는 평균간호원 한
사람이 매년 10명의 환자의 생사에 결정적 역할
을 하는 셈이다. 한국인 한 사람의 생명은 간호
원이 해외에서 힘들여 벌어들이는 100블의 가치
만이 있는 것일까?

간호원이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이나 점차적인
불구의 대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가는 거의
해야될 수 없는 것이지만 본인이 추산한다면 단
성 질병이나 사망에서 20명은 건질 수 있으리다
고 본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불
구가된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예방할 수 있었
다면 5분쯤의 돈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급성질환이나 단기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
에서 간호원 한 사람의 손실은 해야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러나 급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은
인구당 대략 4% 정도임은 이해할 수가 있다.

간호원이 한국에서 봉사하므로써 사회가 규정
하는 경제적인 가치는 매월 60~100블이고 매년
900블 정도일 때 간호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국
내외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가 있다.

위의 자료를 다음의 도표로서 요약할 수가 있
다.

독일에서 취업하는 간호원 한 사람이 매년 한국에
주는 영향 ;

- 연간 해외에서 돌아오는 평균액수 \$ 1,000
- 연간 국내의 경제적 손실 \$ 900
- 연간 평균 급성상의 이익 \$ 100
- 연간 평균 가외의 사망 10명
- 한국인의 사망에 따른 평균 경제적 이득 \$10
- 연간 평균 가외로 만성 질환이나 불구가 생겨나
수 200명
- 불구가 된 한국인 한 사람당 평균 경제적 이득
\$ 0.5
- 한국인 매인당 해외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 \$0.00003
- 한국인 매인당 전체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
\$0.000003

이런 숫자들을 보면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전체
한국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 간호원을 수출하기
위해 독일병원협회와 협의중이라는 사실을 믿기
가 어렵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검은 노예들을 팔던
교역이나 국제시장에서 쓸 현금을 벌기위해 자
기의 종족을 팔던 부락추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그러나 오늘날의 “밝아진” 세상에서도 경
제적으로는 부유하나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 또
는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노동력은 넉넉한 국
가가 병행하면 육십 많은 관리들에 의해 사함을
팔고 사는 거래가 소생할 수가 있다.

<이 글은 1971년 2월 28일자 Korea Times 에 게재
되었던 것임>